1

옥병동 암각문

조사경위

필자는 1993년 7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남대 학술조사단을 이끌고 4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 4리에 소재한 玉屛洞 巖刻文을 조사한 바 있다. 본래 학술조사단은 '93년도 4월부터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로부터 경기도내 훼철서원 조사를 위촉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7월 22일, 포천군 옥병서원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李鍾塤 씨의 안내로 옥병동 암벽에 새겨진 암각문을 접하고, 비로소 1차 조사를 하게 되었다. 1차 조사 이후 문헌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사료적 가치가 예측되어 7월 25일 강남대 학술조사단을 이끌고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시 발견한 암각문 8점을 탁본하고, 아울러 미확인된 암각문을 재조사하였다. 이때 「吐雲床」「靑鶴臺」 등 2점의 암각문을 발굴 확인하였다. 이후 『思菴集』『農巖集』 등 고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옥병동 암각문의 제작 연대·書體·刻字한 石手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사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포천군청에 문화재 지정을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10월 6일에는 자료 사진 촬영차 현지를 답사하여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결정적인 자료인 「二養亭」「玉屛洞」 외 2편의 암각문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같은 자료를 정리해서 10월 30일에는 향토사연구전국학술대회(제7회)에 참가하여 정식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 글은 그 때 발표한 논문을 보충하고, 이후 재확인한 자료를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옥병동 암각문의 주변 상황

1) 영평팔경의 하나인 창옥병

경기도 포천군에는 예로부터 영평팔경(永平八景)으로 불려지는 명소가 있다. 영평은 포천의 옛이름이다. 영평천 상류에서 하류에 펼쳐진 화적연(禾積淵)·금수정(金水亭)·창옥병(蒼玉屛)·와룡암(臥龍岩)·낙귀정지(樂歸亭址)·백로주(白鷺洲)·청학동(靑鶴洞)·선유담(仙遊潭)이 바로 영평팔경이다. 이 영평팔경을 노래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자못 흥미롭다.

「화적연에서 벼를 털어, 금수로 술을 빚어, 창옥병에 넣어 들고, 와룡을 빗겨 타고, 낙귀정으로 돌아드니, 백로는 횡강(橫江)하고, 청학은 날아드니, 선유담이 예 아니냐.」

구전으로 현지에 전하는 이 노래에서 영평팔경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영평의 문사들은 물론, 외지에서 이 곳을 방문한 많은 시인 문객들도 영평팔경의 경치를 노래하였다.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작품으로 <영평잡영(永平雜詠)>이라는 제목의 시가 2편이 있는데,[1] 모두 영평의 승

경과 순박한 지역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창옥병은 포천군 창수면에 있는 영평팔경의 하나이다. 이름에서 말해주듯 푸른빛의 구슬 병풍을 펼쳐 놓은 듯한 바위산의 경치는 가히 장관이다. 깎은 듯한 절벽이라 해도 굴곡이 있고, 고저가 있고 암혈이 있는가 하면, 가진 형태의 동물모양이 되어 돌출한 바위도 있다. 전체가 반달처럼 펼쳐진 바위 병풍은 그 폭을 한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하고, 높이가 4, 50척에서 백척이나 된다. 이 일대의 전수량을 모아 가지고 보장산(寶藏山)과 일대 충돌하는 첫 접전면이 바로 이 창옥병이다. 이러한 경관을 두고 옛 시인 묵객들은 시상을 억제치 못하였다. 특히 양사언(楊士彦)은 이 곳 사람으로 도처에 정자를 지어 놓고 풍류를 일삼았다. 박순은 만년에 이곳에 우거하며 여생을 마쳤고, 이의건(李義健)·김수항(金壽恒)·김창협(金昌協) 등도 자주 찾아 발자취를 남긴 곳이다. 옥병서원의 좌측 강변에는 암반이 강 가운데까지 기교한 형상으로 뻗어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2)]

2) 사암 박순의 소요지인 창옥병

사암 박순(1523-158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우윤(右尹)을 지낸 우(祐)의 아들이며,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조카이다. 1553년

1) cf., 『思菴集』 2;3a, 3;19b.
2) cf., 『堅城誌』, 『抱川郡誌』(포천군, 1987).

(명종5)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수찬·교리 등을 거쳐 응교로 있을 때 임백령(林百齡)의 시호(諡號) 문제로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사서 파면되었으며, 향리인 나주로 퇴거하였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한산군수로 선정을 베풀었고, 홍문관 직제학·승정원 동부승지·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1565년(명종20) 대사간으로 있을때 윤원형을 탄핵함으로써 척신 일당을 제거한 주역이 되었다. 그뒤 대사헌·대제학·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 등 여러 벼슬 지내고 1572년(선조5) 영의정에 올라 15년간 재직하였다. 일찌기 서경덕(徐敬德)에게 성리학을 배워 정통하였으며, 중년에는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사사하였다. 만년에 이이(李珥)·성혼(成渾)·기대승(奇大升)과 깊이 사귀어 교분이 두터웠다. 문장과 글씨로도 명성이 있었다.

박순이 영평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병술년(1586) 8월의 일이다. 이이가 탄핵되었을 때 그를 옹호하다가 도리어 탄핵을 받고, 스스로 물러나려 하였다. 이 때 선조는 여러 차례 만류하였지만, 그는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도성을 떠날 때 임금께서 내사(內使)를 보내어 동문 밖에서 술을 내렸다고 한다. 사암은 그 길로 지금의 창수면 옥병동에 배견와(拜鵑窩)를 짓고 거주하였다. 칠언절구인 <숙배후귀영평(肅拜後歸永平)>이라는 시는 바로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영평에 돌아와서 지은 작품이다. 관직에 있으면서 임금의 심려를 괴롭히기 보다는 물러나 있음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참잡한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3] <복거(卜居)>라는 시에서는 우두천(牛頭川) 가에 집을 짓고 농사일 하며 지내는데, 평소 농사일 배우지 아니하여 괭이질조차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였다.[4]

---

3) cf., 『思菴集』 2;1a.

또한, <차기연사운(次寄然師韻)>이라는 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천연사라는 스님의 권유가 사암이 영평에 거처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듯하다.

「천연사는 영평 보장산에 살았다. 내가 영평에 자리잡아 살려고 한다고 하니, 천연사가 일찌기 우두연의 좋은 경치를 말하면서, 그 물가에 양씨의 정자가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사라고 권했다. 천연사가 막 거처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5]

사암은 거처를 영평에 자리잡은 이후부터는 창옥병 주변의 경개를 완상하며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일체 말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촌노들과 함께 친밀히 교유하였다. 그가 여생을 창옥병 주변에서 소요하며 지냈음은 그의 문집인『사암집』도처에서 살필 수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자료이다.

「병술년(1586, 선조20) 중추에 영평에 왔다. 그곳의 산천을 구경하고 마음에 들어 드디어 자리를 정하였다.」[6]

「병술년 8월에 휴가를 청하여 영평에 퇴거하였는데, 임금께서 내사를 보내어 동문 밖에서 술을 내렸다. 영평에는 백운산이 있어 시내와 못이 뛰어났다. 공은 그 길로 자리잡아 집을 짓고서 살며 완전히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말하지 않고, 매일같이 시골 백성과 야노들과 함께 자리

4) cf.,『思菴集』2;1a.
5) "師住永平寶藏山 我欲卜居永平 師嘗說牛頭淵勝槪 且上有楊氏亭 勸我買之 師方欲移錫 故云"(<次寄然師韻>,『思菴集』3;18b).
6) "余於丙戌仲秋 承恩 浴椒井于永平地 覽其溪山而心悅之 遂稅駕而居焉"(<二養亭記>『思菴集』4;18a).

를 다투며 친밀히 교유하였다. 배우러 오는 자가 있으면 서로 토론하며 즐거워하여 지칠줄 몰랐다. 배견와·이양정·토운상의 명칭이 있었고, 백운계·금수담·창옥병이 둘려 있어서 흥이 나면 지팡이와 나막신 차림으로 소요하였다.」[7]

「선조 때 문충공 사암 박선생은 율곡·우계 제현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고 또한 종신이 되었다. 격렬한 당쟁에 노후를 영평 창옥병에 와서 보냈고, 배견와를 지어 유유자적하다가 돌아갔다.」[8]

위의 기록에서 시사하듯이 사암은 배견와를 지어 머물면서 창옥병 주변의 경개마다 이름을 붙여두고 즐겼다. 자신의 집을 배견와라 이름 붙인 것은 창옥병에는 봄 여름 할 것 없이 두견새가 찾아와서 울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배견옹」이라고 자처하였다.[9] 다음의 <이양정기>는 창옥병 언덕 위에 이양정을 짓고 지은 기문인데, 창옥병 주변의 경개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더우기 옥병동 암각문의 내용을 증빙하는 문헌자료이기에 매우 중시된다. 번다하므로 옥병동 암각문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적기한다.

「우리 동방에서는 영평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나, 그중에서도 청령담이 더욱 유명하다. 그 수원은 백운산에서 시발하였다. 종현산 동쪽에서 흘러 나온 지류는 소에 이르러 다시 벼랑를 이루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바

---

7) "丙戌八月 乞暇 沐浴于永平 上遣中使 宣醞於東門外 永平有白雲山 溪潭節勝 公仍卜築居之 瀟灑出塵 口節時事 日與村氓野老 爭席忘形 有來學者 則相與討論 亹亹不倦 有拜鵑窩二養亭土雲床名號 還以白雲溪金水潭蒼玉屛 興至 杖屨逍遙或游楓岳諸山"(宋時烈 撰, <思菴朴淳神道碑銘>).

8) 金平默, <玉屛影堂記>.

9) cf., <拜鵑窩>(『思菴集』 2;3b).

닥에는 모두 반석으로 깔려 있고, 반석 중에서도 높은 것은 솟아 올라 혹은 거북이 모양을 하고, 혹은 용인양 꿈틀거리는 듯하다. 소를 굽어보며 대를 이룬 것이 넷인데, 하나는 백학이요, 다른 하나는 청학이다. 백학이 청학을 타고 가끔 물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모두 사실만 같다. 또 다른 것은 산금대와 수경대이다. 중간에는 석상이 있는데 토운상이다. 바위의 뿌리가 물 속에 울퉁불퉁하고 한 말이나 들어가는 파인 곳이 있어 그것을 와준이라고 한다. 서쪽으로 깊은 소가 있으니 이름하여 명옥연이라 한다. 큰 암벽이 마치 하늘을 기대어 우뚝 서 있고, 그의 뿌리로 깊은 沼에 잠겨 마치 조화의 극치를 자랑하는 듯한 창옥병이 그 대표라 하겠다. 소 저편에 초가집을 세웠는데 배견와라 이름하였다. ……또다시 그 벼랑 위에 집을 세우고 이양정이라 이름하였다. ……그 왼쪽을 보면 큰 암벽을 대하고 있고,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다.」[10]

사암은 이처럼 창옥병 주변의 절승처에 이름 붙이고, 그곳에서 소요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시 가운데 "영평의 시냇물 돌에 쓰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작품, <제영평계석>[11] <제영평계석상>[12] <제영평계석상>[13] 등이 그같은 사실을 충분히 증빙하고 있다.

다음 시 <창옥병>에서는 사암이 창옥병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

10) "吾東方山水 此縣最名 由縣而言 淸泠潭 其尤也 卽白雲溪之所渚 而源發白雲山也 鍾賢東支 至潭作崖 故水底 皆布全石 高者露出 詭怪錯陳 有若龜龍曝日 島嶼浮溟崖之嵁巖 俯潭爲臺者四 曰白鶴 曰靑鶴 白者或乘靑者一隻 時往來洲渚 皆其實也 餘曰散襟 曰水鏡 中介石床 曰吐雲 巖足陂陀於水心 有窪容斗 曰窪尊 潭瀉長灘 西折而淵 曰鳴玉 大壁倚天根 浸灘淵 極造化之剞劂 曰蒼玉屛 葺茅潭西曰拜鵑窩 又就潭崿最峻處 規爲草亭 曰二養 觀其左 當大壁 右聯四臺"(朴淳 撰, <二養亭記>『思菴集』 4;18b-19b).

11) cf., 『思菴集』 1;8b.

12) cf., 『思菴集』 2;22b.

13) cf., 『思菴集』 2;31a.

상제가 곤륜산의 천길되는 석골을 오려내어
온갖 신령이 분주하게 아로새기는 수고를 했다.
높고 험하게 거꾸로 꽂혀 있는 바다거북의 굴을
도리어 사암을 시켜 세상에 나와 보게 하였구나.

帝剪崑丘千丈骨
百靈奔走費雕劘
巉巉倒揷黿鼉窟
還使思菴出世看[14]

사암은 이 시에서 창옥병은 상제가 신선에게 명하여 아로새긴 것이라는 격찬과 자신이 그곳에 머물게 된 것도 상제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가 처음 영평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은 작품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처음 작품이 시류에 몰리어 재상직에서 물러나 산야에 묻혀 살아야 함을 탄식한 것이라면, 이 작품에서는 창옥병에서 매우 만족해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후학 김창협이 지은 <창옥병 2수>라는 작품 가운데도 사암이 창옥병 도처에 발자취를 남겼음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은 그 두번째 시의 일부이다. 이 시 전반부에서는 영의정 벼슬을 마다하고 물러난 사암의 덕망과 경륜을 칭송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사암의 자취가 남겨진 배견와, 백학대 등에서의 감흥을 노래하였다.

봄 저물어 가는데 슬픈 두견새는 아직도 사당에서 울고
하늘 비어 있는데 백학은 대(臺)로 돌아오지 않는다

14) 『思菴集』 2;1b.

지금까지도 무우(舞雩)에서 바람쐬는 홍취 추억하지만
그분 따라 목욕하고 읊조리며 돌아온적 없어 한스럽다.

春暮哀鵑還哭廟
天空白鶴不歸臺
秖今尙憶風雩興
恨未曾隨浴詠廻[15]

도암(陶巖) 이재(李縡)가 지은 <방창옥병>이라는 작품에도 사암의 자취가 역력히 그려져 있다. 해당 부분만 적기한다.

배견와는 비어 있고 산은 적적하며
산협은 돌아가는데 안개 자욱하다
시냇물은 와준의 돌을 파고 들고
바위 단풍은 사당 뜰에 떨어진다.

窩空山寂寂
峽轉霧冥冥
溪水侵樽石
巖楓落廟庭[16]

이 시의 소재가 된 배견와, 와준은 모두 사암의 유적이다. 창옥병을 찾는 이라면 으레 사암의 인품과 학문, 그리고 사암이 이름붙인 여러 명소를 감회 깊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만큼 창옥병과 사암의 관계는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

15) 『思菴集』 附錄.
16) 『思菴集』 附錄.

3) **옥병서원**(玉屛書院)

사암 박순과 관련한 유적지로 옥병서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서원은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포천 유림이 세운 서원이다. 현재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산 210번지에 위치한다.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사암이 만년에 살았던 배견와 터에 서원을 세우기로 하고, 우선 사우만 창건하였다. 1658년(효종9)에 비로소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였으며, 1680년(숙종6)에는 영정을 봉안하였다. 1698년(숙종24)에 영의정 신원(申玩)의 주청으로 이의건(李義健)과 김수항(金壽恒)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1713년(숙종39)에 「옥병(玉屛)」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1722(경종2년) 서원의 일부를 수리하였다. 그후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오던 중 1871년(고종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시 훼철되었으며, 위패는 매안(埋安)하였다. 이때 이덕수(李德秀)라는 이가 영정을 궤에 담아 보관하였으며, 1892년(고종29) 이덕수·이난수(李蘭秀)를 비롯한 포천 유림의 공의로 서원터에 영당을 세워 영정을 봉안하고 중단된 향사를 부활하였다. 이때 김성대(金聲大)·이화보(李和甫)를 추가 배향하였다. 1926년에는 윤봉양(尹鳳陽)을 추가 배향하였다. 이후의 사실은 자세하지 않으나 6.25때 이 영당마저 회진되고 말았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단을 설치하여 향사를 이어왔을 개연성이 짙다. 1978년에야 이명우(李命雨)를 회장으로 한 옥병서원복원추진회를 결성하여 1980년에 사당과 삼문을 복원하였다. 이듬해에 배향인물의 위패를 다시 봉안하였다. 이후 복원사업을 계속하여 담장과 동서재·홍살문을 복원하였다. 현재 경내 건물로는 6칸의 숭현각·신문·동재인 창옥재(蒼玉齋), 서재인 송월당(松月堂)이 있으며, 담장 밖에는 홍살문과 박순의 신도비가 있다.

비석은 2기인데, 1909년에 세운 구비와 1991년에 새로 세운 신도비다. 본래는 강당도 있었으나 복원하지 못하였고, 홍살문과 외삼문 사이에 주초만 남아 있다. 숭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맞배집붕에 방풍판을 달았다. 그 안에는 중앙에 좌로부터 박순·이의건·김수항의 위패를 모셨으며, 좌측 벽면 쪽으로는 김성대·윤봉양을, 우측 벽면 쪽에는 이화보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경내의 현판은 모두 김충현의 글씨이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 중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은 5 변 5두이다. 재산으로는 전답 5,000평이 있다. 현재 포천군 향토유적 26호로 지정되어 있다.[17]

17) 옥병서원에 관해서는 필자의 「경기도 훼철서원조사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문헌 자료로는 『典故大方』, 『太學志』, 『書院可攷』, 『堅城誌』, 『抱川郡誌』(포천군, 1987)가 있으며, 『思菴集』 『農巖集』 등에 書院重修記, 影幀奉安文, 賜額請願文 등이 실려 있다.

옥병동 암각문의 제작연대와 내용

1) 제작 연대

필자가 옥병동 암각문을 발굴 조사하기 이전에는 제작연대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대체로 이곳의 명사였던 봉래 양사언의 유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옥병서원장을 지낸 이윤성(李允應) 씨 등은 박순의 유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들의 주장에는 모두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양사언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그가 이곳의 출신으로 만년을 여기서 보냈으며, 창옥병 주변에는 금수정을 비롯하여 그가 지은 정자·누대가 널려 있었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현지에서는 옥병동 암각문을 양사언의 글씨로 보는 이가 많았다. 박순의 유적지로 본 견해는 이 암각문이 사암을 주벽으로 모신 옥병서원 바로 밑인 언덕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성해응(成海應)은 옥병동의 암각문 중 가장 중시되는 선조(宣祖)의 윤음(綸音)을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썼다고 하였다. 그가 지은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창옥병」조에 보면 "선조가 박순을 일러 말하기

를, 「松筠節操 水月精神」이라 하였다. 우옹이 써서 산금대와 수경대 중간에 새겨놓았다"[18]고 하였다. 이 글에서 말한 '우옹'은 바로 우암 송시열을 지칭한다.

그동안, 옥병동의 암각문을 두고 박순·양사언·송시열의 서체라는 주장이 함께 전해왔던 것이다. 사실, 이 옥병동의 암각문에 대해서는 『사암집』에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누구든 관심만 갖고 검토해 보았다면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사암의 <이양정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옥병동의 암각문은 사암이 이곳에 우거하면서 빼어난 경개마다 「청령담·백학대·청학대·산금대·수경대·토운상·명옥탄·와준」 등의 이름을 짓고 당시의 명필가 한석봉의 필적으로 암벽에 새겨둔 것이라고 한다. <이양정기> 말미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

> 「이름짓고 기록한 사람은 이양정 주인이다. 그 큰 글씨와 작은 글씨를 쓴 사람은 주부 한호이다. 그것을 11개의 돌에 새긴 이는 솜씨가 뛰어난 신이(辛夷)이다. 이 해는 만력 16년이다.」[19]

위의 자료는 옥병동 암각문에 관련한 가장 구체적적이고 확실한 자료이다. 이 기록에 의하며, 옥병동의 바위에 일일이 이름붙인 이는 바로 이양정 주인인 사암 박순이다.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명필가 한석봉이다. 이것을 바위에 새긴 이는 신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은

---

18) "宣廟謂朴思菴曰 松筠節操 水月精神 尤翁書于散襟水鏡之間 而刻之"(成海應, 『東國名山記』「蒼玉屛」).

19) "名而志之者 二養主人 筆其大字與小字者 韓主簿濩 鏤諸十有一石者 辛秀才夷也 時歲萬曆十六年也"(朴淳, <二養亭記>, 『思菴集』 4;19b).

만력 16년인 1588년(선조21)에 있었다. 옥병동 암각문은 지금으로부터 410년이나 된 자료인 셈이다.

조선조의 명필 한석봉이 이러한 암각문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 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단지 사암 박순이 영의정에 있었고, 한석봉이 당시 주부(主簿)로 있었다는 상하 관계에서만 이해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사암의 시 가운데 <답한별좌호래의(答韓別坐濩來意)>라는 작품이 있는데,[20] 이는 한석봉이 사암의 거처를 방문하였을 때 고마움을 표하며 지어준 시이다. 다음 싯구에서도 사암과 한석봉은 남다른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대가 서예를 잘함을 알겠거니와
벼루 앞에서 몇 해를 배웠던가
마음은 혼탈무 가볍게 여기고
기세는 백운향의 신선을 위압한다.
한 글자로 나라를 빛날만 하여
목청 돋궈 노래하며 연경으로 향하네
돌아오면 각별한 상을 받을 터이고
어진 아내의 잠을 놀라 깨게 하리라.

見子工於藝
臨池學幾年
心輕渾脫舞
氣壓白雲仙
一字堪華國
高歌遠向燕

20) cf., 『思菴集』 2;11a-b.

歸來荷殊奬
驚罷孟光眠[21]

위의 시는 사암의 <송한사과호부경(送韓司果濩赴京)>이라는 작품으로,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한석봉이 사과의 벼슬에 있을 때 연경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암이 그를 전송하며 지어준 시이다. 한석봉에게 지어준 시작품 2편만 들어 사암과 한석봉의 친분을 가늠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암이 한석봉을 남달리 아끼고, 한석봉 또한 사암을 방문하여 인사할 정도로 공경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1개나 되는 암각문 모두 한석봉의 글씨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시사한다.

다음 시는 사암 박순이 암각문을 새기고 난 뒤의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바위 모퉁이 글자 새기느라 애쓰며 시일을 소비한 것은
오래가도 하늘과 같이 남아 있기를 꾀해서이네
아! 눈 깜짝할 사이에 회겁에 따라
개울이 돌아가버리고 산이 묻히면 훗날 누가 알랴.

鏤字岩阿努費日
擬將悠久與天期
嗟嗟一瞬隨灰劫
川勃山湮後孰知 [22]

---

21) 『思菴集』 2;24b.
22) 『思菴集』, 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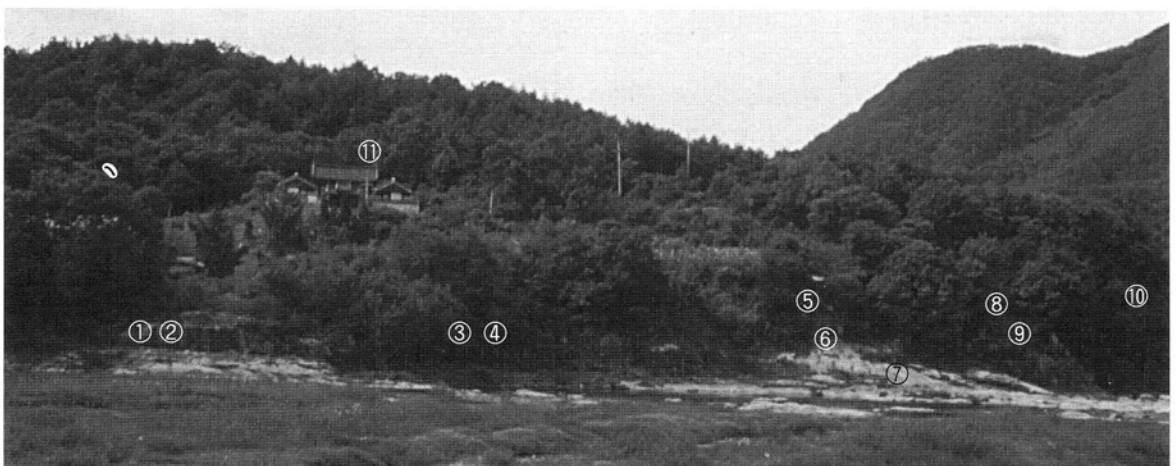
이 작품의 제목은 <亭臺溪岩 皆有名號 刻石其上 因感而賦之>이다. "정자 누대 시내 바위에 모두 이름이 있어 돌에 새기고 느낌이 있어 시를 짓는다."는 뜻이다. 앞서 소개한 <이양정기>와 함께 옥병동 암각문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농암 김창협(1651-1708)의 시작품 <창옥병> 가운데 "푸른 이끼 끼고 침식된 글씨들 옛벽에 남았고 /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蒼蘚蝕題餘古壁, 綠波如酒漲窪樽)"라는 싯구에서 시사하듯이 옥병동 암각문은 조선후기 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2) 옥병동 암각문의 내용

이상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옥병동 암각문을 발견된 지역별, 자료별로 편의상 구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옥병동 암각문 배치도



1. 宣祖綸音　2. 散襟臺　3. 題二養亭壁詩　4. 水鏡臺　5. 障瀾　6. 靑鶴臺
7. 吐雲床　8. 窪尊　9. 淸冷潭　10. 二養亭　11. 玉屛書院

〈자료1:1〉 선조 윤음(宣祖綸音)

松 節 水 精
筠 操 月 神

* 글씨크기: 60×60㎝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자료1;1>은 선조의 윤음을 암벽에 각자한 것이다. 이 자료는 다음에서 보듯이 증빙할 만한 기록이 충분히 있어서 그 내용과 제작연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상의 사람됨을 보니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 충용의 금도는 온화하고 우아하게 도와서 천성을 이루었고, 청신한 덕은 백옥을 가리우고 문채를 떨친다.」[23]

「우리 선조대왕께서 일찌기 교지를 내리시기를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분이 군부에게 이해되어 기림을 받음이 또 이러하였으니 아름답고 대단하도다.」[24]

「양사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공이 당여를 옹호한다고 탄핵하고 열 가지 죄를 세기에까지 이르렀다. 임금께서는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25]

「삼가 생각건대, 사암선생은 자신의 덕을 닦아서 안은 곧고 밖은 방정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근심을 먼저하고 즐거움을 뒤에 하였다. "염락의 인물에 개원천보의 시조"라고 한 중국 사신의 평에 부끄럽지 않았으며,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라고 한 성조의 칭찬에 진실로 부합하였다.」[26]

---

23) "但見領相之爲人也 松筠節操 水月精神 忠勇之度 輔溫雅而成性 淸愼之德 掩白玉而振彩"(李選 撰, <行狀>).

24) "惟我宣祖大王 嘗敎曰 若朴某 松筠節操 水月精神 其爲君父所知奬 又若是 猗歟盛哉"(李選 撰, <行狀>).

25) "至於兩司交章 劾公以護黨 數其十罪 上曰 朴某 松筠節操 水月精神 執不允"(李恒福 撰, <諡狀>).

26) "恭惟思菴先生,修身則內直外方 立朝則先憂後樂 濂洛人物 開天詩調 不愧皇華之評 松筠節操 水月精神 允符聖祖之奬"(金壽恒 撰, <玉屛書院上樑文>).

「선대의 정신 영의정 박순의 도덕이 높고 낮음은 신등은 실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일찌기 듣기에는 우리 선조대왕께서 하교를 내려 포상하며 말씀하시기를 '松筠節操 水月精神' 여덟 자로써 하셨습니다. 윤음의 밝기는 해와 달과 같아 비록 깊은 골짜기의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능히 외어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27]

계미년(선조16, 1583)에 율곡 이이가 탄핵을 받고 돌아가게 되자 우계 성혼이 글을 올려 구해(救解)하였다. 임금께서는 대신들에게 성혼이 올린 상소의 옳고 그름과 이이의 죄의 유무를 물으시었다. 사암이 먼저 말하기를 그 때 사람들이 율곡과 뜻이 맞지 않아서 탄핵하여 제거하려까지 하였으니 공론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율곡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자를 유배토록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한 때 논란이 매우 격조해졌다. 양사에서는 번갈아 글을 올려 사암이 당여를 옹호한다고 탄핵하며 열 가지 죄를 세기에 이르렀다. 선조는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삼사에서 없는 말을 날조하여 사암 박순을 헐뜯어 상소하였다고 분개하였다. 비록 십년 동안 논핵한다 해도 따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박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히 교서를 내리어 삼사의 직책에 있는 자는 외직에 보했고, 논핵을 주도한 이는 변경으로 유배토록 하였다. 사암은 자신의 일 때문에 조정이 불안해지자 영평으로 물러나 있었다.[28]

위의 사실에서 <자료1;1>은 1583년(선조16)에 박순에게 내린 하교의 내용이며, 이것을 나중에 박순이 창옥병 암벽에 각자한 것임이 분명해진

27) "先正臣領議政朴淳淳之道德崇庳 臣等誠不足以知之 然竊嘗聞 我宣祖大王嘗下敎褒之曰 松筠節操水月精神八字 綸音炳若日星 雖窮鄕未學 亦能誦而傳之"(「代永平儒生請玉屛書院賜額疏」, 『農巖集』 7;19).

28) cf., <行狀> <謚狀>.

다. 글씨는 <이양정기>에서 밝혔듯이 한석봉이 썼고, 이를 새긴 이는 신이라는 석공이다. 네 폭의 병풍에 두 글자씩 써 놓은 것처럼 바위병풍이 둘러져 있어 경관으로도 최고이다. 더우기 이 자료는 농암 김창협이 말했듯이 "윤음의 밝기는 해와 달과 같아 비록 깊은 골짜기의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능히 외어서 전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사암이 선조 임금으로부터 받은 "松竹 節操 水月 精神" 여덟 자의 깊은 뜻은 이 곳의 관리는 물론,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오랜 동안 전해져 온 것이다.

〈자료1:2〉 산금대(散襟臺)

<자료1;2>는 <자료1;1> 바로 곁에 각자 되었지만, 서로 별개의 자료이다. 각자한 곳이 「산금대」임을 표시한 암각문이다. 글씨체는 <자료1;1>과 동일한 한석봉의 것이다. 각자한 사람과 연대도 같다.

산금대는 누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나 자세하지 않다. 사암을 비롯한 여러 문인 풍류객들이 옷을 풀어 헤치고 마음껏 승경을 완상하며, 시흥과 취흥을 즐겼던 곳이 아닌가 한다.

散襟臺

*글씨크기: 18×20㎝
*제작연대: 1588년
(선조21)

〈자료1;3〉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

<자료1;3>은 박순의 <제이양정벽>이라는 시를 김수증(1624-1701)이 써서 암각한 것이다. 창옥병 암각문에서 유독 이 자료만 글씨체가 다르다. 굳이 글씨 쓴 사람을 시문 곁에 각자한 것도 이 때문인가 한다.

谷鳥時時聞
一箇匡牀寂
寂散群書每
憐白鶴臺前
水纔出山門
便帶淤右思菴

先生詩金壽增書

* 글씨크기: 18×18㎝
* 제작연대: 1700년 전후

시의 제목이 쓰여 있지 않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나, 시문의 내용과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박순이 이양정을 지은 연대가 1588년(선조 21)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이 시는 그 이후 지은 것임에 틀림없다. 김수증이 이 시를 예서체로 쓴 시기도 자세하지 않은데, 대략 1700년경이 아닌가 한다. 김수증은 옥병서원에 배향하고 있는 김수항(金壽恒)의 형이다.[29] 조카인 김창집·김창협·김창흡이 기사환국(1689년) 이후 영평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창옥병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가 죽은 해가 1701년이고 보면, 기사환국 이후부터 10여년 사이에 <자료1;3>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글씨를 암벽에 새긴 이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의심되는 점은 이양정과 이 암각문이 새겨져 있는 암벽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이양정 밑 암벽에 「二養亭」이라는 한석봉의 글씨가 남아 있는데, 굳이 현재의 위치에 <제이양정벽>이라는 시를 걸맞지 않게 새긴 저의를 알 수 없다. 참고로 이 작품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다.

골짜기의 새소리 때때로 한 마디씩 들려오는데
침상은 쓸쓸하고 여러 책들 흩어져 있네.
언제나 안타까운건, 백학대 앞의 물로서

29) 이 글씨를 쓴 김수증(1624-1701)은 조선 후기의 문신·성리학자·서예가이다. 자는 延之, 호는 谷雲, 본관은 안동이다. 金尙憲의 손자이다. 젊어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 금강산 등여러 곳을 유람하였다. 성천부사로 있던 중 동생인 金壽恒이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동에 있는 籠水精舍에 은거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동생 김수항과 송시열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악산 골짜기에 은둔하였다. 이 때 성리학에 심취하였다. 글씨로도 유명하였는데, 圃隱先生神道碑·石室書院廟庭記 등 많은 비문에 그의 필적이 남아 있다. 춘천의 春睡影堂에 제향되었으며, 문집으로 『谷雲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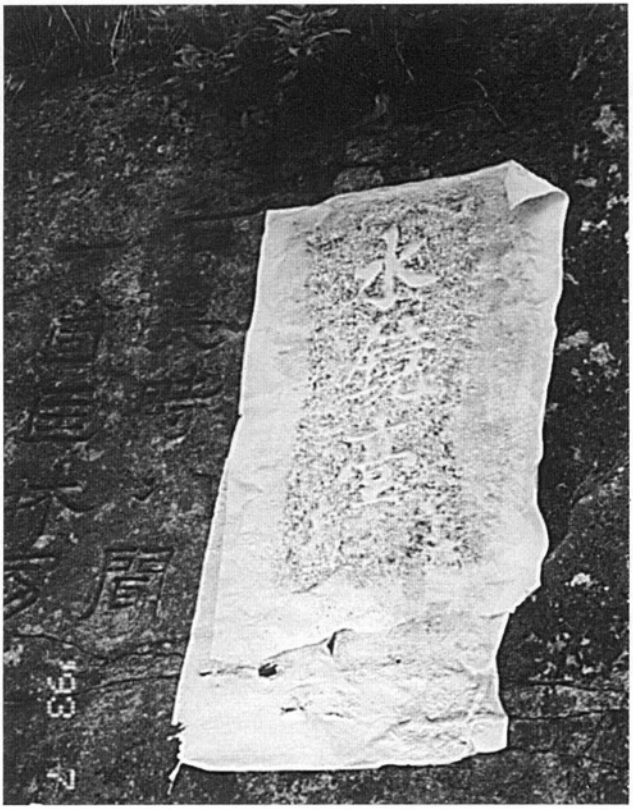
산 입구를 겨우 나가면 곧 흙탕물을 띤다네.

谷鳥時時聞一箇
匡牀寂寂散群書
每憐白鶴臺前水
纔出山門便帶淤[30]

〈자료1;4〉 수경대(水鏡臺)

<자료1;4>는 <자료1;3>과 같은 시기에 각자한 것으로, 그 곳이 수경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암각한 것이다. <제이양정벽> 시작품 바로 곁에 각자되어 있기 때문에 혹간 이것이 시의 제목이 아닌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서체를 살피면 그런 오해는 쉽게 사라진다. 「水鏡臺」 세 글자는 한석봉의 해서체로 각자되어 있고, 시문은 예서체이다. 현지의 상황으로는 이 암각문 위에 누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옛 시인들의 싯구에 "수경대에 고요한 달빛은 마치 선경을 방불케 한다"고 하였다.

30) 『思菴集』 2;33b.



水鏡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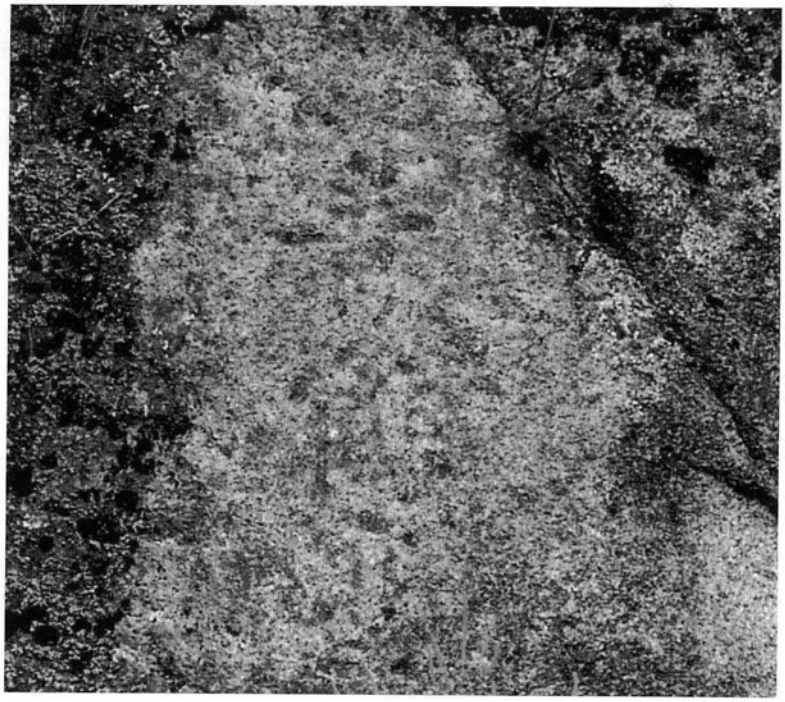
* 글씨크기 : 18×20㎝
* 제작연대 : 1588년

〈자료1:5〉 장란(障瀾)

* 글씨크기: 18×20㎝
* 제작년대: 1588 (선조21)

<자료1;5>는 문헌에 기록된 바가 없어 미확인된 자료이나, 글씨체나 제작연대는 다른 자료와 차이가 없다.

〈자료1:6〉 청학대(靑鶴臺)



靑
鶴
臺

* 글씨크기: 18×20㎝
* 제작연대: 1588년

<자료1;6> 청학대는 앞에서 소개한 산금대·수경대·백학대와 함께 창옥병에 있었던 누대였다. <이양정기>에는 "소(沼)를 굽어보며 대(臺)를 이룬 것이 넷인데, 하나는 백학이요, 다른 하나는 청학이다. 백학이 청학을 타고 가끔 물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모두 사실인 듯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청학이 옥병암에 가끔 나타나 이 누대 근처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사암이 이 누대의 이름을 「청학」이라고 한 것은 단지 청학이 이 곳에 날라 온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사암집』에 <청학>이라는 제목의 시가 전하는데, 이 누대의 당시 정황을 가늠케 한다.

붉은 부리 푸른 털에 한쌍의 자주색 다리로
훨훨 날아와 옥병암 서쪽에서 운다.
온세상이 까막새라 부른들 무슨 상관 있겠느냐
닭 떼와 함께 더러운 진흙을 쪼지 않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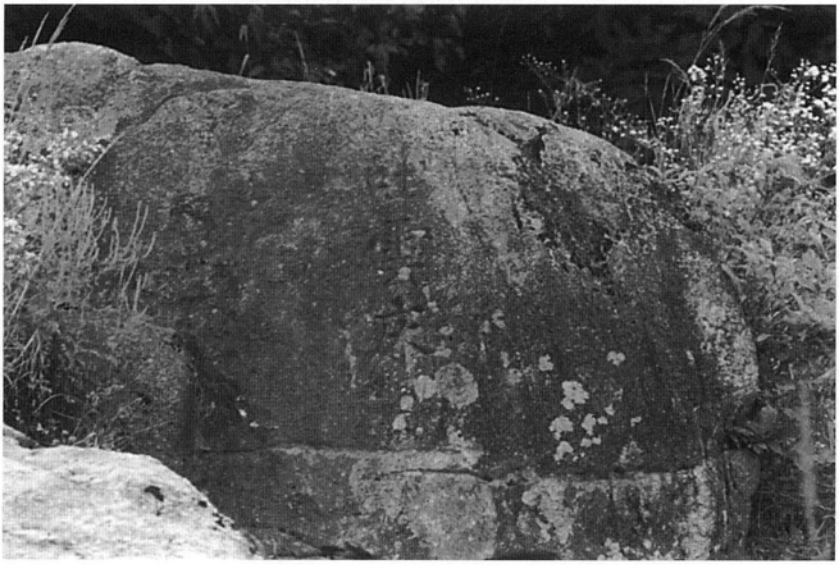
丹咮青毛雙紫脚
翩翩來叫玉屛西
何嫌擧世呼黔鳥
不與鷄群啄汝泥[31]

이 시의 소재가 된 청학은 속명으로 검조(黔鳥), 즉 까막새라고 한다. 내용으로 보아 사암 자신의 처지를 비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간흉들에 의하여 탄핵을 받았을 때 결백함을 은근히 청학에 비의(比擬)한 것이다. 군계(群鷄)는 바로 간흉들이다. 그 들과 더불어 더러운 진흙을 쪼지 않는데, 남들이 자신을 까막새라 부른들 무슨 상관있겠느냐고 토로하

31) 『思菴集』 2;16b.

였다. 누대의 이름을 굳이 「청학」이라고 한 것은 그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료1:7〉 토운상(吐雲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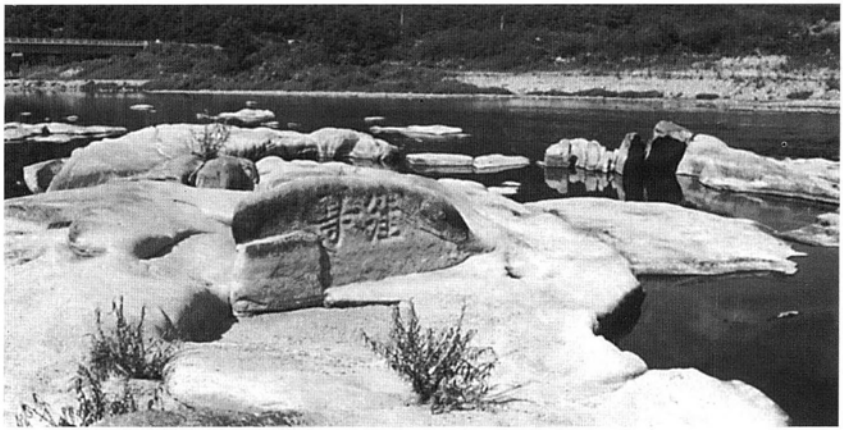


吐雲床

* 글씨크기: 18×20㎝
* 제작연대: 1588년

<자료1;7>도 앞의 다른 자료와 같이 사암이 이름짓고, 한석봉이 썼으며, 신이라는 석공이 일시에 새긴 것이다. 사암의 시작품 가운데 「토운상」의 이름이 자주 나타난다. 말 뜻 그대로 "구름을 삼켰다 토했다"하는 곳이다. <이양정기>에는 "중간에 석상이 있는데 토운상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청학대 밑 물가에 근접해 있는데, 물안개가 자욱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도 말끔히 걷히면 누대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바위이다. 바닥면이 반석같아 독서하거나 술자리로 제격이다.

〈자료1:8〉 와준(窪尊)



尊　窪

* 글씨크기:45×45㎝
* 제작연대:1588년(선조21)

이 암각문은 암벽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물가에 있는 암반 중 돌출한 부분에 새긴 것이다. 글자가 새겨진 뒷부분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마치 술동이 모양이다. <이양정기>에는 "바위의 뿌리가 물 속에 울퉁불퉁하고 한 말이나 들어가는 파인 곳이 있어 그것을 와준이라고 한다."[32]고 하였다. 박순의 <제석와준(題石窪尊)>이라는 시가 있어 이 자료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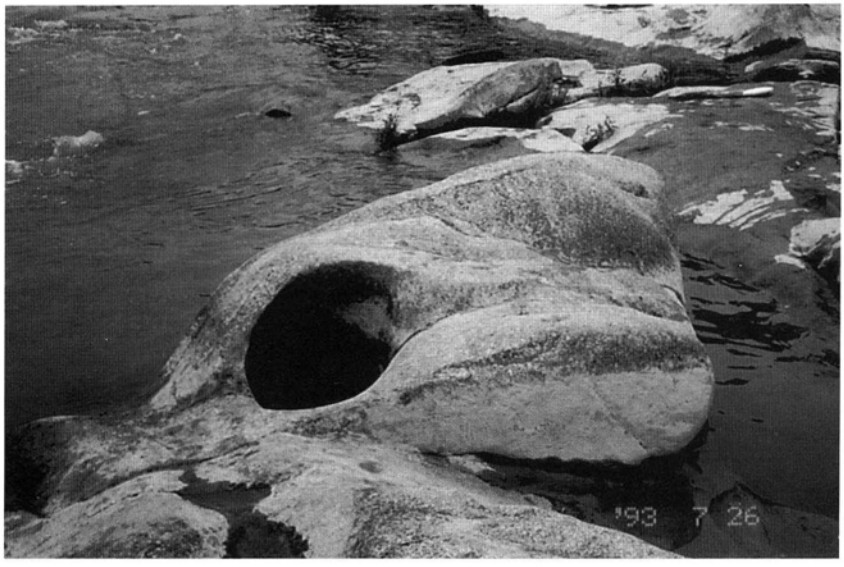
수면에 울퉁불퉁 솟아있는 푸른 돌등에
한 구멍이 어찌나 다져졌는지 절로 둥그렇게 되었네
맛있는 술 담아내어도 쏟아지지 않으며
술 취한 후에 산늙은이는 또 베고서 잔다.

水面盤陀蒼石背
一窪何鍊自成圓
堪涵綠蟻無傾覆
醉後山翁又枕眠[33]

32) "巖足陂陀於水心 有窪容斗 曰窪尊"(朴淳 撰, <二養亭記>).
33) 『思菴集』 2;3b.

▲ 窪尊(탁본)

▼ 窪尊(後面)



위의 시에 따르면 「와준」이라는 이 자연적인 돌술항아리에 술을 부어 놓고 마음껏 취하고는 그곁에 돌을 베고 잠을 잠다는 것이다. 양사언에게 준 <증양해성(贈楊海星)>이라는 시 가운데도 "봄이 오면 다시 찾아 주겠는가. 와준에 술 가득하고 산엔 꽃이 가득하리니(春來肯許重相訪 酒滿窪樽花滿山)"[34]라는 귀절이 있어 사암이 방문객을 맞아 와준에서 취흥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훨씬 뒤의 문인인 김창협의 <창옥병> 싯구 가운데도 와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 주목을 끈다.[35]

우두연 아래에는 상공의 마을이 있는데
소나무 강언덕에 배를 매니 바로 묘문이라
푸른 이끼끼고 침식된 글씨들 옛벽에 남았고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
정신은 촉상에 전하나 종신은 아득하여라
창옥병 민산처럼 솟은 곳에 은사가 계셨었네.
시대는 멀어도 마음 기약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윽한 거처를 한 시내의 수원과 함께 하였음에랴

牛頭淵下相公村
松岸維舟是廟門
蒼蘚蝕題餘古壁
綠波如酒漲窪樽
神傳蜀相宗臣迥

34) 『思菴集』 2;11a.
35) 김창협(1651-1708)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仲和, 호는 農巖·三洲, 본관은 안동이다. 영의정 金壽恒의 둘째 아들이다. 金昌集·金昌翕과 함께 3대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부친이 진도에서 사사되자 벼슬을 버리고 영평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문집으로 『農巖集』이 있다. 시호는 文簡이다. 그의 문집에 창옥병에 관련한 자료가 많아 본고에 도움이 되는 바가 많다.

屛聳閩山大隱尊
曠世心期餘不隔
幽棲況共一溪源[36]

위의 시 가운데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라는 싯구에서 시사하듯이 와준은 옛날 시인묵객들의 애호를 받던 명소였다. 김상정(金相定)은 <옥병서원>이라는 시에서 사암의 학덕을 칭송하면서 "뚜렷이 알겠거니와 천년 후에도 소나무와 달은 와준을 비칠 것이다."[37]고 하였다. 지금도 그 구멍을 보면 꼭 술항아리를 보는 듯하다.

〈자료1:9〉 청령담(淸泠潭)

이 암각문은 이곳의 물이름을 명명하고 기록해둔 것으로 추정된다. 「청령」은 물이 매우 맑아서 투명함을 느낄 정도의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사암은 <이양정기>에서 청령담의 경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 동방에서는 영평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나, 그중에서도 청령담이 더욱 유명하다. 그 수원은 백운산에서 시발하였다. 종현산 동쪽에서 흘러나온 지류는 소에 이르러 다시 벼랑를 이루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바닥에는 모두 반석으로 깔려 있고, 반석 중에서도 높은 것은 솟아올라 혹은 거북이 모양을 하고, 혹은 용인양 꿈틀거리는 듯하다.」[38]

---

36) 『農巖集』 6:25.
37) "懸知千載下 松月照窪樽"(<玉屛書院> 『思菴集』 附錄)
38) "吾東方山水 此縣最名 由縣而言 淸泠潭 其尤也 卽白雲溪之所渚 而源發白雲山也

사암이 양사언에게 지어준 <증양해성>이라는 시 가운데 이곳의 경치를 묘사한 것이 있어 관심을 끈다.

청령담 밝은 달에 오봉의 노을
아름다운 경치 끝없는 것 본래 한 집이라
뉘라서 이 즐거움 함께 할지 모르지만
와서 동료되어 복숭아꽃 구경하려는지.

淸泠明月五峯霞
風景無邊自一家
未識誰能同此樂
肯來相伴看源花[39]

김창협의 『농암집』에 <청령뢰신정상량문(淸泠瀨新亭上樑文)>[40]이 전하는데, 바로 이 곳에 정자를 새로 세워 시인 묵객들이 소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암은 청령뢰 위에 정자를 짓고 난 뒤의 감흥을 <청령뢰신루서흥(淸泠瀨新樓書興)>[41]에 남기기도 하였다. <청령뢰첩인자(淸泠瀨疊人字)>[42]라는 작품도 청령뢰에서의 취흥을 그린 것이다.

鍾賢東支 至潭作崖 故水底 皆布全石 高者露出 詭怪錯陳 有若龜龍曝日 島嶼浮溟 崖之嵁巖"(朴淳 撰, <二養亭記>).

39) 『思菴集』 2;11a.
40) cf., 『農巖集』 26;26a-28b.
41) cf., 『農巖集』 5;8.
42) cf., 『農巖集』 5;4.

清冷潭

* 글씨크기: 40×40㎝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자료1:10〉 이양정(二養亭)

<자료1;10>은 가장 늦게 발굴된 자료이지만, 사암의 <이양정기>가 있어서 당대의 형상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이양정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적기한다.

> 「창옥병에서는 언제나 봄 여름 할 것 없이 뻐꾸기가 찾아와서 우는데 산이 비어 소리가 먼곳까지 울려퍼져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케 한다. 또다시 그 벼랑 위에 집을 세우고 이양정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이천(伊川)의 '양덕(養德)'과 '양체(養體)'를 뜻한다. 그 왼쪽을 보면 큰 암벽을 대하고 있고, 그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다.」[43]

위의 기문에서 시사하듯이 이양정은 정이천의 '양덕'과 '양체'를 본따 이름붙인 정자이다.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창옥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암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정자가 아닌가 한다. 현재 정자는 소실되었고, 암벽에 「이양정」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다. 앞에서 살핀 창옥병의 암각문은 이 정자를 지은 직후 제작된 것이다.

---

43) "又就潭嶼最峻處 規爲草亭 曰二養 取伊川養德養體之義也 觀其左 當大壁 右聯四臺 皆負崇山 面勢澄泓 讚巒叢峭 拱揖內嚮 石骨瓊田 倒燭縈廻 呑吐乎煙嵐 晻靄乎林坰 舒慘異候 萬變迭形 闢奇矜秀 各不相讓 咸與收精會神 俎豆於枕石之間 爲吾所蓄 而日與之娛 棲遲嘯詠"(朴淳 撰, <二養亭記>).

二養亭

* 글씨크기: 40×40㎝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옥병동 암각문의 사료적 가치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 4리 옥병동에 소재한 암각문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우선, 이 암각문에 관련한 사실이 문헌자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구전에 근거하여 전해오는 다른 암각문과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경승지를 유람하다가 즉흥적으로 각자한 자료와도 구별된다. 하나의 암각문이 각자된 것이 아니라, 무려 11점의 암각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시된다. 우리나라 서예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암각문 자료는 옥병동 마을에 거주하며, 바위에 일일이 이름붙인 사암 박순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암벽 위의 옥병서원은 바로 그를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의 명필가 한석봉이다. 이것을 바위에 새긴 이는 신이라는 사람이다. 이 암각문을 제작한 시기는 만력 16년(1588년, 선조21)으로, 지금으로부터 410년이나 되는 자료인 셈이다.

이들 암각문 중에서도 <자료1>은 선조가 박순에게 하교한 윤음을 각자한 것이다. 김창협에 의하면 향리의 사람들이 이 암각문을 암송하고

전하여 신조로 삼아 살아갔다고 한다. 그만큼 이 암각문은 포천 군민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가가 기대된다. <자료3>은 1700년경에 예서체의 대가로 알려진 김수증의 글씨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김수증이 쓴 비문은 도처에 산재해 있으나, 이같은 암각문은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다음으로, 이 암각문은 금석문 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조선 중기의 대표적 관료 문인인 박순의 전기적 사실과 옥병서원에 관련한 주변의 사실을 실증해주는 사료로서 한국학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포천군의 영평팔경 중 하나인 창옥병의 유래와 유적을 증빙하는 사료로, 향토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